

6월 4일 수능 모의평가

# 국어 영역 (A형/B형)

교시

# 국어 영역(A형)

분석 및 해설

정답	01 ③	02 ①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①
	21 ①	22 ④	23 ⑤	24 ⑤	25 ④	26 ②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①	36 ⑤	37 ④	38 ②	39 ⑤	40 ③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1	하	화법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2	하	화법	대화 내용과 방식 분석
3	하	화법	발표 계획의 반영
4	하	화법	듣기 과정의 평가*
5	하	화법	청중 반응의 적절성 평가
6	하	작문	글쓰기 전략의 파악
7	하	작문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8	하	작문	자료 활용
9	중	작문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10	하	작문	조건에 맞추어 쓰기
11	상	문법	음운 변동의 유형 파악
12	중	문법	국어사전 정보의 완성
13	하	문법	어휘의 의미
14	하	문법	바른 문장 표현의 이해
15	하	문법	담화상황에 따른 문법요소의 이해
16	하	기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17	상	기술	내용의 추론적 이해
18	중	기술	구체적 사례에 적용**
19	중	과학	내용의 사실적 이해
20	하	과학	내용의 추론적 이해
21	하	과학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22	하	인문	내용의 사실적 이해
23	하	인문	내용의 추론적 이해
24	하	인문	내용의 추론적 이해(맥락의 파악)
25	상	인문	구체적 사례에 적용 해석**
26	중	인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27	하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28	하	사회	내용의 추론적 이해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29	하	사회	구절 이해
30	중	사회	사례 적용 및 해석
31	하	고전 시가	표현상 특징 파악
32	하	고전 시가	시구를 통한 시상의 이해
33	중	고전 시가	비교 감상하기
34	중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
35	하	현대 소설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36	하	현대 소설	서술 의도 및 인물의 태도 파악
37	하	현대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38	하	고전 소설	발화의 성격과 의미 파악
39	중	고전 소설	인물에 대한 이해
40	하	고전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41	하	현대시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42	중	현대시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43	중	현대시	시어의 의미 파악
44	하	희곡	작품 감상의 적절성
45	중	희곡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 신유형 문제

\*\* 출제 가능 문제

## 출제 경향

### ❖ 화법

친구 간의 대화와 발표를 제재로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말하기 방식, 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듣기 과정에 대한 평가,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판단 문제 등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과 큰 차이 없이 출제되었다. 교과 과정 안의 기본적인 화법 이론 등을 학습하고 지문 안의 정보와 시, 공간적 맥락 등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면 무난하게 해결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작문

봉사 활동 소감문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과 관련한 작문 과제 수행 내용을 제재로 하여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EBS 교재에 실려 있는 송수권의 시 〈까치밥〉의 내용을 일정 부분 연계하여 작문 문제로 출제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독서 제시문을 화법 문제와 연계한다든가 수필 작품을 작문 문제와 연계하는 등의 유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시 내용을 작문 문제와 연계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 출제 패턴에 다양한 변화를 주려는 평가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 문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주어진 정보의 단순 적용 능력 평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문법 지식의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사나 문장과 관련한 깊이 있는 문법적 내용들이 출제되지 않아 난이도는 다소 낮았다 할 수 있겠다.

#### ❖ 독서

##### • 기술

지문 인식 시스템을 소개하는 글을 출제하였다. 지문 입력 장치를 소개한 후 장치의 차이를 구별하였는지를 묻고,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여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문제도 출제하였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세부 정보가 많았지만 문제 유형은 평이하였다.

##### • 과학

원자의 구성 요소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문제들도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어서 비교적 쉬웠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다만 19번은 선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 당황할 수 있었다.

##### • 인문

메타 윤리학의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글로 주로 정서주의의 장점, 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 이론의 차이를 구별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5번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로 A와 B를 정확히 구별하며 추론하여 적용해야 한다.

##### •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 관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지문 내용과 문제가 대체로 평이한 편이었다. 다만 30번은 글 전체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어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어서 지문 독해와 함께 종합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다.

#### ❖ 문학

##### • 고전 시가

이번 6월 모의 평가에는 시가 복합 문제(시조 세 작품) 형태로 출제되었다. 출제 문항은 표현상의 특징, 표현과 연결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으로, 전형적인 구성으로 출제되었다.

##### • 현대 소설

EBS 인터넷 수능을 연계한 작품(김유정, ‘봄봄’)이 출제되었지만, 제시문은 EBS 교재와 다르다.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심리와 태도, 소설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전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 고전 소설

EBS 수능특강과 연계한 작품인, ‘홍계월전’이 출제되었고, 제시문은 극히 일부가 수능특강과 겹친다. 사건의 흐름만 파악되었다면 발화의 성격과 의미를 묻는 문제나 인물에 대한 문제는 쉬운 문제이고,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문제 또한 전체 사건에서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만 하면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 구성이었다.

##### • 현대시

고은의 〈성묘〉와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안 텃마루〉가 출제되었다. 고은의 시는 『EBS 인터넷수능』에 수

록된 작품이며, 서정주의 시는 기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여 감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출제된 문항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문제 등이다. 시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점검하는 기존의 수능의 출제 방향과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 화곡

EBS 수능특강에 수록되었던 제시문을 중심으로 일부를 추가하여 출제하였다. 익숙한 작품이기도 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 자체는 실험극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작품이다.

### 학습 대책

#### ❖ 화법

화법은 교과 과정상의 이론이 선택지에 대폭 반영되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격률, 교차 토론, 의사소통의 원리 등 수험생들이 낯선 용어 등을 철저히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대담 등에서의 사회자의 역할, 원활한 대화에서 필요한 공감, 비언어적 표현 등 자주 나오는 이론 등을 EBS 문제 등을 통해 복습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 ❖ 작문

작문 문제에 의외로 약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해 선지 속 정보와 연계시킬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작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정돈되지 않은 글을 정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자료 속에서 핵심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 수정, 보완해야 하는 선지에 적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선지에서는 주어진 자료와 관계가 없지만 학생들의 확장 해석이나 고정관념을 유도하는 정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로 선지를 분석하는 독해 태도를 가져야 한다.

#### ❖ 문법

문법 영역은 음운, 형태소, 조사, 어미, 품사, 문장 등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의 이해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교과서나 기본 교재를 통해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소한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문법이 더 이상 어려운 영역은 아닐 것이다.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어법의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 ❖ 독서

##### • 기술

기술 지문은 기술의 원리와 과정 등을 설명하여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다. 이러한 지문을 학습할 때는 지나치게 세부 정보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글에서 설명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 정보는 다시 해당 내용을 글에서 찾으려면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은 필요 부분만을 찾아 이를 남들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과학

지문의 세부 내용을 위주로 독해하기보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문단이나 항목 간의 연관성까지 생각하는 유기적, 체계적, 구조적 독해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 특히 시간 부족에 대비하여 출제 의도와 정답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 • 인문

인문 지문의 내용은 주로 철학적 이론의 관점과 인물의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세부 내용을 위주로 독해하기보다는 각 이론의 핵심 내용과 각 인물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하며 독해하고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읽어야 한다. 평소에 철학의 기본 분야와 기초 이론을 간단히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

사회 지문의 일반적인 제재였던 경제나 정치 제재가 아닌 법률 제재가 출제되었다. EBS를 비롯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을 수험생 각자의 수준에 맞게 내용, 개념 위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문 학

• 고전 시가

EBS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는 학습을 해 두어야 한다.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와 사상의 전개 과정, 주요한 표현상의 특징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도록 하자.

• 현대 소설

제시문만으로도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지만, 제시문 독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문학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작품 및 EBS에 수록된 작품 위주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고 서술상의 특징 및 배경, 소재의 특징 등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 고전 소설

보통 고전 소설은 생소한 작품이 출제되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EBS와 연계된 제시문의 경우는 전체 줄거리와 인물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만 되어 있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EBS의 경우는 작품을 주요 사건 단위로 줄거리를 정리해 두고, 인물들의 특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EBS 작품을 독해할 때 기본적인 서사 장르의 독해 요령도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대시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표현상 특징과 관련한 개념어 또한 평소에 익혀 두어야 한다.

• 희곡

EBS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EBS의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반

드시 필요하다. 주요 사건 단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희곡의 경우에는 희곡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나 용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오답 베스트 해설 보기]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의 해설 동영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 설

[01~05] (화법)

01 |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 ③

㉔은 겸손한 의도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겸양의 격률)이 아니라 상대방을 추어올리는 표현이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cf. 겸양의 격률 :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함

오답 피하기

- ①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상대의 생각에 동조하는 발화이다.
- ② ‘고개를 젓는’ 비언어적 표현인 행동과 ‘안 될 것 같아’라는 발화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토요일에 연습하자는 상대의 제안에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도와줘’라는 식의 직설적 표현이 아닌 의문문을 활용하여 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⑤ 학생 1이 한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라는 말을 반복하여 재진술하고 있다.

02 | 대화 내용과 방식 분석

정답 : ①

[A]는 ‘연습 시간’에 대해, [B]는 ‘연습 장소’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학생 1’과 ‘학생 2’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한 분석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③ [A]는 언제 연습을 할 것인지는 ‘연습 시간’에 대해, [B]는 어디서 연습을 할 것인가하는 ‘연습 장소’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연습 시간의 축소’나 ‘연습 장소의 이동’ 문제가 아니다.
- ④ [A]와 [B] 모두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대화의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 ⑤ [A]에서는 제시된 안을 ‘학생 1’이 종합하고 있으나, [B]에서는 ‘학생 2’의 동의로 대화가 종결되었다.

### 03 | 발표 계획의 반영

정답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한 부분은 발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처마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뒤로 처마의 기능을 설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③ 둘째 문단에서 서양식 주택의 처마와 한옥의 처마를 비교하여 서양식 주택의 처마와 한옥 처마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한옥 처마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첫째 문단에서 전통 한옥 체험을 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한옥의 특징과 기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신유형 문제

### 04 | 듣기 과정의 평가

정답 : ④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뜬다’와 ‘겨울에는 햇빛이 처마에 걸리지 않음’은 모두 사실 정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두 정보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다.
- ② 반복하는 내용은 강조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으므로 발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아파트 생활’이라는 자기 경험과 관련지어 들었다.
- ⑤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했다’는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의 공통점이다.

### 05 | 청중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⑤

청자 3은 시각 자료의 활용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서까래’나 ‘기단’과 같은 용어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청자 1은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자 1은 창호를 한옥의 대표적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청자 1은 창호를 한옥의 대표적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여름철 한옥이 시원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청자 2는 처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관련한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청자 2는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원고에만 집중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지 못했음을 고쳐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06~10] (작문)

### 06 |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 ②

과거 할아버지께서 까치밥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 같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가 친구들과 봉사 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할머니를 만나 봉사활동을 한 후 ㉡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과 ㉡을 연결하여 이 소감문의 주제인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완전한 이해가 체험을 통해 완전한 이해로 되었다고 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시문의 소감문은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인식이나 깨달음에 초점이 있다.
- ④ ㉠과 ㉡ 모두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 ⑤ ㉠에서 ㉡이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에서 감성으로 호소하는 말로 바뀌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감문의 내용상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7 |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③

㉔의 바로 앞 문장에서 내가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㉔에서 ‘그렇게’라는 지시어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바로 앞 문장과 ㉔의 순서를 바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글의 흐름상 더욱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 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주제만 있어야 한다는 글의 통일성에 비추어 ㉔의 전과 후를 별도의 문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㉔의 전은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의 끼치밥에 얹힌 추억의 내용이고 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최근에 뉴스를 접한 후 친구들과 함께 한 봉사활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㉔ 전후 문장의 흐름에 비추어 ‘그런데’라는 전환의 접속어보다 ‘그래서’라는 인과의 접속어가 더 자연스럽다.
- ④ 문맥상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라는 ‘거부하다’보다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는 ‘ 사양하다’가 더 적절하다.
- ⑤ ㉔는 부모의 노후에 대한 가족의 의무와 효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글의 중심내용은 봉사활동과 나눔에 대한 실천 및 중요성을 다루는 글이므로 통일성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08 | 자료 활용

정답 : ⑤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 중 세 번째에 ㉔가 활용되고 있다.
- ② 둘째 문단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 중 첫 번째에 ㉔가 활용되고 있다.
- ③ 둘째 문단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 중 두 번째에 ㉔가 활용되고 있다.
- ④ 셋째 문단에서 요리 프로그램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 첫 번째에 ㉔가 활용되고 있다.

09 |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②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은 중심 소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중심 소재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므로 ‘요리 관련 서적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중심 소재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므로 ‘방송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글의 주제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므로 ‘요리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글의 주제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 조건에 맞추어 쓰기

정답 : ③

‘마지막 문단이니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㉔을 고려하면 인기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요약했으므로, [A]에는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업화와 방송 다양성 감소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③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져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과는 무관하다.
- ② 요리 프로그램의 선정성은 부정적 영향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져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과는 무관하다.
- ⑤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져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과는 무관하다.

[11~15] (문법)

11 | 음운 변동의 유형 파악

정답 : ④

㉔에서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ㅃ’으로 바뀌었다. 즉, ‘ㄴ’과 조음 방법이 달랐던 ‘ㅂ’이 ‘ㄴ’의 영향으로 ‘ㄴ’과 조음 방법이 같은 ‘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동화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㉑에서는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으로 바뀌긴 했지만 ‘ㄷ’과 ‘ㄱ’이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므로(‘ㄷ’은 윗잇몸에서, ‘ㄱ’은 여린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 동화가 아니다.
- ② ㉒에서는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ㅋ’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ㅎ’과 ‘ㄱ’이 축약되어 ‘ㅋ’이 된 것이므로 동화가 아니다.
- ③ ㉓은 동화가 맞지만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 것이 아니라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음운인 ‘ㄹ’로 바뀌었다.
- ⑤ ㉔에서는 ‘ㄷ’이 ‘ㄹ’의 영향으로 ‘ㄲ’으로 바뀌었다.

**12 | 국어사전 정보의 완성**

정답 : ①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에서 ‘과’는 사귀는 행위의 대상이 ‘낯선 사람’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①의 ③의 용례이다. ㉑에는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와 같은 문장을 넣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①의 ②에 적절한 용례이다.
- ③ ①의 ③은 앞의 체언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④ ②의 유의어에는 ‘하고’, ‘랑’, ‘이랑’ 등을 들 수 있다.
- ⑤ ‘와’와 ‘과’는 이형태이다.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는 ‘과’,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와’가 붙는다.

**13 | 어휘의 의미**

정답 : ③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에서의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뿌리는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이다. 오히려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에서의 ‘뿌리’가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의 중심적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㉑ :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퍼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중심적 의미)
- ㉒ :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주변적 의미)
- ② ㉑ :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중심적 의미)
- ㉒ :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주변적 의미)
- ④ ㉑ :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중심적 의미)
- ㉒ :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주변적 의미)
- ⑤ ㉑ : 공기 중의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중심적 의미) ㉒ :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주변적 의미)

**14 | 바른 문장 표현의 이해**

정답 : ④

우선 <보기 2>에서 ‘수정 전’과 ‘수정 후’의 표현상 차이에 주목한다면 첫 번째 줄에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보아 <보기 1>의 ㉔의 점점 사항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에 ‘지역에’가 ‘지역의’로 표현이 달라진 것을 통해 <보기 1>의 ㉒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두 번째 줄의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가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로 달라진 점을 통해 <보기 1>의 ㉑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㉔의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의 사용 여부는 <보기 2>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용례로는 ‘고목 나무’, ‘동해 바다’ 등이 있다.

**15 | 담화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이해**

정답 : ②

㉒의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감탄사’로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나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다. 해당 담화 상황에



서는 ‘감탄사’로서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에 의미로 A가 B에게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을 하려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쓴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끊어진 거야’는 ‘끊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으로 전화가 끊어진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아차!’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B의 발화처럼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A의 말을 듣고 난 직후에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부정 부사 ‘못’으로 약속을 어긴 일이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다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못 갔어.’라는 막연한 B의 대답에 자세히 말해달라는 요청을 의문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18] (기술)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지문 인식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지문 입력 장치는 등록 지문과 조회 지문이 동일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지문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물리량의 차이로 지문을 구별한다.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빛의 세기로 지문 영상을 획득하고,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전하량의 차이로 지문 영상을 얻고,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생체 정보 수집 단계-전처리 단계-특징 데이터 추출-정합’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 주제 : 지문 인식 시스템

16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①

셋째 문단에서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첫째 문단, 정맥은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③ 다섯째 문단,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장치가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 융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야 온전한 지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⑤ 다섯째 문단,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센서의 온도가 달라지며 지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17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③

넷째 문단에서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둘째 문단에서 지문 입력 장치는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융선은 접촉면과 닿아 전하량이 줄어들고, 골은 닿지 않아 전하량이 줄지 않으므로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다

오답 피하기

- ①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셋째 문단에서 융선으로 형성된 얇은 막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융선에서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는 골에서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약하다.
- ②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융선에 대응하는 전하량이 더 약하다.
- ④ ⑤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므로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더 높다.

출제 가능 문제

18 |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정답 : ④

마지막 문단에서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는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보기>에서 홍채 무늬는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므로,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를 추출해야 한다.

[19~21] (과학)

###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원자의 구성 요소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인데 먼저 1897년 톰슨이 기체 방전관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하며 ‘건포도빵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후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후 1911년 러더퍼드의 라듐 충돌 실험에서 양전기가 ‘원자핵’이라는 좁은 구역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태양계 모형’을 제안한다.

1931년 닐스 보어는 전자가 핵주위의 특정한 궤도만 돈다는 ‘에너지 양자화 가설’을 제안하였고, 1919년 러더퍼드는 질소 충돌 실험에서 양성자를 확인한다. 1932년에 채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하였고, 1935년 유키와 히데키는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양성자를 잡아당긴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 **주제** : 원자의 구성 요소의 발견 과정

### 19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②

원자의 구조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각각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넷째 문단에서 1932년 채드윅은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하였다.
- ③ 둘째 문단에서 전자는 음전기, 셋째 문단에서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 ④ 둘째~넷째 문단에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순서로 발견되었다.
- ⑤ 넷째 문단에서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려 하는 힘인 반발력이 제시되었다.

### 20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①

둘째 문단에서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새로운 실험이 가능해졌고, 러더퍼드는 라듐으로 실험하여 원자핵을 발견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② 넷째 문단 양성자 발견이 유키와 히데키의 중간자 가설의 전제가 되었다.
- ③ 넷째 문단 채드윅이 아니라 유키와 히데키가 양성

자가 흩어지지 않고 핵 안에 모여 있음을 설명하였다.

- ④ 원자모형은 둘째 문단 ‘건포도 모형’에서 셋째 문단 ‘태양계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 ⑤ 둘째 문단 알파 입자 실험을 통해 양전기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1 |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 ①

- ① 고르게는 ① 고른과 의미가 유사하다. (무엇이) 다른 것들에 견주어 치우치거나 들쭉날쭉한 데가 없이 한결같다.

#### 오답 피하기

- ② (사람이 둘 이상의 대상에서 필요한 대상을) 가려 집어낸다.
- ③ (사람이 악기나 목소리, 붓 따위를) 가다듬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다.
- ④ (사람이 울퉁불퉁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다듬어 평탄하게 만들다.
- ⑤ (숨이나 날씨 따위가) 정상적이고 순조롭다.

### [22~26] (인문)

#### [지문 해설]

• **해제** :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가 있다. 도덕 실재론은 도덕적 판단과 진리를 과학적 판단과 진리와 마찬가지로 보고,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판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정서주의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정서주의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의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주제** : 메타 윤리학의 도덕적 실재론과 정서주의

### 22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정서주의의 장점과 의의를 도덕적 실재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23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정서주의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메타 윤리학은 개념과 원칙에 대해 연구한다.
- ② (라) 정서주의는 동기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 ③ (다)에서 정서주의는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나), (다)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의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24 | 내용의 추론적 이해 (맥락의 파악)

정답 : ⑤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감정과 다르므로, 바뀔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없이 바뀔 수 없다.

출제 가능 문제

### 25 | 구체적 사례의 적용 해석

정답 : ④

(라) 도덕적 실재론은 도덕적 판단도 참, 거짓으로 판정할 있는 명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도덕적 실재론자인 B는 둘 중 하나를 ‘거짓’인 명제로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다)에서 정서주의는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에서 도덕 실재론은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므로 도덕 실재론자인 B는 예술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② (다)에서 정서주의는 옳음,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③ (다)에서 정서주의는 도덕적 판단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⑤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서주의자인 A이다.

### 26 |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 ②

규정(規定) :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규칙으로 정한 조항,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27~30] (사회)

#### [지문 해설]

- **해제** :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을 설명하고 있다. 손해 배상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적 수단인데 반해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각각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 수단,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수단이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과징금등 행정적 제재수단이 억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다. 그러나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주제** :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

### 27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웃금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둘째 문단)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다.(셋째 문단) 그러나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넷째 문단) 특히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황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수단인 배상금이 형사적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제재가 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5문단)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넷째 문단에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 ② 넷째 문단에 “... 중복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해설자 추가)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다섯째 문단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셋째 문단에 “...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8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셋째 문단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등 행정적 제재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⑤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29 | 구절 이해**

정답 : ④

둘째 문단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㉔벌금과 비슷한 성격’은 ‘형사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바르다. 행정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과징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㉑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기존제도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㉑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고 서술되어 있음으로 ‘직접적인 도움은 손해배상, 즉 금전적 구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㉒의 ‘그것’은 앞 구절을 받는 지시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상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③ ㉓의 ‘이’는 앞 구절을 받는 지시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상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하고 보고 있다. 여기서 횡재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횡재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초과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 사례 적용 및 해석**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넷째 문단)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첫째 문단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 억제하는 데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시행으로 억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넷째 문단에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3배의 배상금에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 달리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넷째 문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기>에서는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⑤ 셋째 문단에 “...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보기>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고 했으므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이기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1~33] (고전 시가) (가) 남구만의 시조, (나) 위백규, ‘농가(農歌)’, (다)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지문 해설】**

**(가) 남구만의 시조**

약천(藥泉) 남구만이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의 풍류를 즐기며 쓴 작품이다. 주제는 농가의 부지런한 생활로 밝아오는 아침과 하늘 높이 날며 지저귀는 종달새를 통해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다. 농촌의 아침 정경을 여유 있게 표현해 운치와 맛을 살린 대표적인 권농가(勸農歌) 중의 하나로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가르침과 부지런히 일하는 건강한 모습이 작품 전반에 잘 나타나 있다.

• 주제 : 근면한 노동 생활의 권한.

**(나) 위백규, ‘농가’**

• 해제 : 이 작품은 농촌을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보거나 농민의 삶을 관념적으로 예찬한 사대부 계급의 일반적인 시조 작품들과 달리, 농촌을 농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보고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제4장에는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의 고된 노동과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휴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제6장에서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자연을 완상과 예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사대부들의 강호가도(江湖歌道)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으며, 소 잔등을 타고 가는 사람의 풀피리 소리는 농민의 삶에 깃든 소박한 풍취를 느끼게 한다.

• 주제 : 농부의 삶

**(다)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해제 :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는 월령체(月令體) 노래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월령(月令)이란 한 달의 할 일을 열거한 표를 뜻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농사일과 의식(儀式), 세시 풍속 등이 담기게 된다. 이 작품은 농가의 행사를 한 달 단위로 나누어, 각 달의 절기상 특징과 농사일, 세시 풍속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농촌 생활 및 세시 풍속과 관련된 사실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이 자신들의 생활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가 일방적인 설교조로 농민을 훈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 계급이 느끼는 현실적 정서보다는 지켜야 될 예의범절이나 풍속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 **주제** : 월령과 절후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의 소개

### 31 |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 ⑤

(㉠)의 초장에 있는 ‘노고지리 우지진다’, (㉡)의 제4수 중장에 있는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그리고 (㉢)의 ‘뽕꼭새 자주 울고’와 ‘피꼬리 노래한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 ㉡) 모두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의 <제2수>, (㉢)에는 각각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의 <제3수>에는 농부의 근면한 삶과 휴식, 그리고 사대부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드러나 있고, (㉢)에서는 ‘4월의 절기 소개→4월의 정경 묘사→4월에 해야 할 농사’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화자의 심경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의 <제4수>와 (㉢)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32 | 시구를 통한 사상의 이해

정답 : ④

㉤은 4월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창’과 ‘노고지리’를 통해 소 칠 ‘아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물음으로써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마주 잡아 둘러내자’에서 청유형을 통해 함께 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앞 부분의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와 관련지어서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 비교 감상하기

정답 : ①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할 작물은 (㉢)에 제시되어 있다 (목화, 수수, 동부, 녹두 등).

오답 피하기

- ② (㉡)의 초장에는 열심히 농사일 하는 모습이, 중장에는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드러나 있다.

③ (㉡)에는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농사일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에는 ‘농사, 누에치기, 목화, 수수, 동부, 녹두’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④, ⑤ 두 작품 모두 공간적 배경이 농촌이다. 그런데 경치를 즐기거나 한가로움과 여유를 누리는 전원적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농부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동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다.

### [34~37] (현대 소설) 김유정, ‘봄 · 봄’

####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인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두고 장인과 갈등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형상화 한 소설이다. 특히,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한 후 나뭇의 계획이 좌절되는 아이러니적 상황을 통하여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장인인 ‘봉필’의 행태를 통해 인간의 간교함에 대한 비판도 내재하고 있다. 봉필은 데릴사위 제도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봉필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기보다는 ‘나’와의 갈등을 형상화하는 부분에서 희화화(戲畵化)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문학사적 연속성으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사설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해학적 요소를 되살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나’와 장인 간의 갈등

### 34 |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 ②

‘작년 이맘 때’ 사건과 ‘그 전날’ 사건을 통해 장인과 나, 점순과 나의 혼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계를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은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이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다.
- ③ 이 글에는 현학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직접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심리 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

### 35 |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정답 : ①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와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 똥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이지 않은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오답 피하기

- ② ‘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 않았고, 점순이의 불만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인 문제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마름’으로서의 악행 때문이다.
- ⑤ ‘동리 사람들’은 마름인 ‘장인’에게 굶신거리지만, ‘나’는 ‘장인’의 농사일을 직접 해 주는 처지라서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 36 | 서술 의도 및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 ⑤

실제로 ‘점순이’가 부쩍 자라지도 않았고, ‘장인’이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 다만, ‘점순이’가 ‘나’와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④ ‘점순이’의 행동을 ‘채신없이 들까분다’고 장인이 평가하고 있다.

### 37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④

‘밭’에서 생긴 ‘나’의 울화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또한 울화를 터뜨리는 대상도 ‘소’에 국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장인’은 소작농들이 부치던 땅을 관리하는 마름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 ② “올갈에 벼 잘 되면 너 강가들지 않니”라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남이 이틀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아’놓았다.
- ③ ‘아릇한 꽃내’, ‘별들’, ‘샘물 소리’,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정서적으로 반

응하고 있다.

### [38~40] (고전 소설) 작가 미상, ‘홍계월전’

####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중국 명(明)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여장군(女將軍)의고행(苦行)과 무용담(武勇談)을 엮어나 간영웅 소설로, 여성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위를 획득하며, 나아가 가정에서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지향해 나가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홍계월전’은 실리와 능력을 중시하기 시작한 당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한편,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 38 | 발화의 성격과 의미 파악

정답 : ②

[A]는 천지와 어의의 대화를 통해 평국의 병세와 성별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고, [B]는 남관장이 장계를 통해 오나라와 초나라의 협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와 [B]에서 정황 전달의 주체는 각각 어의와 남관장이지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③ [A]와 [B] 어디에도 외양 묘사, 과장된 표현, 장면의 극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 장면의 극대화 : 유사한 내용을 장황하게 열거하거나 반복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실감을 주는 것(= 확장적 문체).
- ④ [A]는 없고, [B]만 해당한다.
- ⑤ [A]와 [B]의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 39 |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 ⑤

㉠의 앞부분에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대니’라고 했으므로, 홍계월(평국)이 집안일에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③ ㉔의 앞 부분에서 ‘이제는 할 일이 없게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라고 했으므로, 홍계월의 서러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40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③

〈보기〉에 의하면 2차 위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홍계월이 여자이기에 규중에 칩거하는 생활을 하는 모습이 와야 적절할 것이다. 또한 ‘홍계월이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이라고 언급했고, 제시문 내용과도 일치한다.  
 ② 〈보기〉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언급되어 있고, 제시문 내용과도 일치한다.

#### [41~43] (현대시) ㉠ 고은, ‘성묘’,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뒀안 툇마루’

##### [지문 해설]

##### ㉠ 고은, ‘성묘’

- 해제 : 지은이의 시작 경향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초기의 허무적 경향에서 벗어나 역사 의식의 단초(端緒)를 보이는 시기에 쓰인 시이다. 지은이는 소금 장수인 ‘아버지’를 통해 민중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두만강에서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보행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방랑의 길에 올랐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 : 망국의 분단의 현실에 대한 한 /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염원

#####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뒀안 툇마루’

- 해제 : 외할머니의 댁 툇마루에 얹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시로 외할머니 댁에 있던 뒀안에 있는 ‘툇마루’라는 소재를 통하여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추억의 장소이자, 우리네 교육이 이어지는 정감의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꾸밈음보다는 사랑을 통한 정 의 문화가 담겨 있는 교육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여기서 툇마루는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추억의 장소이자, 우리네 교육이 이어지는 정감의 장소

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꾸밈음보다는 사랑을 통한 정 의 문화가 담겨 있는 교육을 엿 볼 수 있는 시이다.

- 주제 : 어린 날의 추억과 그리움

##### 신유형 문제

#### 41 |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 ④

㉠은 ‘붉은 물빛’, ‘하얀 소금’에서, ㉡는 ‘먹오디빛’에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져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과 ㉡ 모두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부분이 없다.  
 ② ㉡에는 부정적 현실을 관조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의 화자는 어린아이로 볼 수 없다.  
 ⑤ ㉠과 ㉡ 모두 역설적 표현이 없으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 자세도 확인할 수 없다.

#### 42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⑤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라는 표현을 통해 통일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과거의 공간으로, 화자는 과거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은 과거 우리 민족의 수난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를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현재의 공간으로,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세대교체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곳이다.  
 ④ ㉡은 미래의 공간으로,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곳이다. 이는 남북이 통일된 모습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것이다.

#### 43 |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 ①

이 시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

다. ‘집 뒤안’은 화자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역시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집 뒤안’이 화자가 텃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텃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 그리고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다. 나이가 너무 많이 묻질러서 ‘거울’로 닦이어져 있다. 이를 통해 ‘거울’은 손때가 텃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화자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은 뒤 텃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주신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으며 숨을 바로 한다고 했다.
- ④ ‘오디 열매’는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
- ⑤ 텃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외할머니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4~45] (희곡) 이강백, ‘결혼’**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이강백의 단막극으로, 실험성이 돋보이는 희곡이다. 무대 장치는 물론이고 무대와 관객들 사이의 공간의 구별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작품의 극적 전략은 연극 공연에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극 속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본래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무절제한 소유적 욕망을 풍자적 상황 설정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관객들 역시 자신의 소유물이 뜻하지 않게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소유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한 남자는 단 한 시간 만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이는 어찌보면 현대인의 진지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은 한 남자가 중국에 주장하는 것, 곧 소유하는 사랑보다는 헌신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극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주제** :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

**44 |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 : ③**

㉞은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실망하여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 하인이 아무 말 없이 빼앗아 가는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② ㉡ 하인이 회중 시계를 내밀어 보이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④ ㉢ 관객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통해 관객을 극중에 끌어들이어 자신의 말을 입증할 증인으로 삼고 있다.
- ⑤ ㉤ 여자가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부축해 일으켜 포옹하는 것은 빈털터리 남자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45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인은 마지막에 구둣발로 남자를 걷어찬다.

**오답 피하기**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무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다.
- ② 하인은 등퇴장을 통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하나 둘씩 회수해 간다. 이를 통해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것이다. 남자는 첫 대사에서 제한된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하인이 무대로 되돌아오기 전에 머무는 공간은 무대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무대 밖 공간이다.
- ④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을 통해 관객을 극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을 극중 사건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어 영역(B형)

분석 및 해설

정답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③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③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1	하	화법	발화의 의도 파악
2	중	화법	발화 내용 추리
3	중	화법	토론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4	하	화법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5	하	화법	대화 내용과 방식 분석
6	하	작문	계획에 따른 초고 평가
7	중	작문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구체화
8	하	작문	초고의 수정·보완 전략
9	하	작문	글쓰기 전략의 파악
10	하	작문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11	중	문법	표준 발음법의 이해
12	중	문법	음운에 대한 이해
13	중	문법	어휘의 의미에 대한 이해
14	하	문법	바른 문장 표현의 이해
15	하	문법	담화 상황에 따른 문법요소의 이해
16	하	문법	국어사의 이해와 적용
17	하	인문	내용의 사실적 이해
18	중	인문	내용의 추론적 이해
19	하	인문	외적 증거에 의한 반응
20	중	인문	어휘 - 바뀐 쓰기
21	하	사회	논지 전개 방식 파악
22	중	사회	내용의 추론적 이해
23	하	사회	핵심 개념의 이해와 비교
24	하	사회	어휘의 사전적 의미
25	하	과학	내용의 사실적 이해
26	중	과학	내용의 추론적 이해
27	하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28	하	사회	내용의 추론적 이해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29	하	사회	구절 이해*
30	중	사회	사례 적용 및 해석
31	하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32	하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33	중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34	하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및 내용 파악
35	하	현대 소설	구절 이해**
36	중	현대 소설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37	하	고전 소설	사건의 흐름 파악
38	중	고전 소설	인물의 심리 파악*
39	중	고전 소설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40	하	고전 소설	사자성어의 상황 적용
41	하	현대시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42	중	현대시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43	하	현대시	시어의 의미 파악
44	하	희곡	작품 감상의 적절성
45	중	희곡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 신유형 문제

\*\* 출제 가능 문제

## 출제 경향

### ❖ 화법

화법의 성격, 요소, 유형 등과 같은 기본 문항은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데 비해 B형은 A형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출제 범위의 차이인데, B형의 출제 범위는 ‘담화 유형’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B형의 경우 담화 유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의



경우도 2번과 3번 문항은 ‘토론 답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3번 문항은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는 것으로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 ❖ 작 문

화법과 문법에 비해 작문 영역은 이전의 수능과 가장 변화가 적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작문의 과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고과정과 표현, 수정하기 등을 평가한다. 자료 활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기와 구체화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 확인, 내용의 수정·보완 및 표현의 퇴고 과정 등은 중요한 작문의 유형이다.

## ❖ 문 법

문법 영역은 음운, 형태소, 조사, 어미, 품사, 문장 등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의 이해와 활용, 국어사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독 서

### • 인문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를 소개하는 글이다. EBS 수능특강에서 출제된 지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심 화제를 묻는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제(17번), 제시문의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추론적 이해 문제(18번),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하라는 외적 준거에 의한 반응 문제(19번) 모두 제시문의 기본적인 이해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바깥 쓰기를 묻는 어휘 문제(20번)는 한자어의 의미에 약한 수험생에게는 정답을 찾는 데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사회

ebs 수능특강의 사회 지문(124쪽) ‘위험 사회’를 연계한 지문이다. ebs에는 올리히 벡의 ‘위험 사회’만 언급되었으나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문제 유형은 논지 전개 방식, 내용 추론, 내용 이해, 어휘 순이었으며

문제 난이도도 비교적 평이하였다.

### • 과학

‘암흑 물질의 존재 및 특성 규명 과정’을 소개하는 글이다. EBS 수능특강에서 출제된 지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암흑 물질에 대한 정보의 사실적 이해(25번),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내용의 추론적 이해 모두 제시문의 기본적인 이해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사례 적용 및 해석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 영역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출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 관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지문내용과 문제가 대체로 평이한 편이었다. 다만 30번은 글 전체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어서 지문 독해와 함께 종합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다.

## ❖ 문 학

### • 고전 시가

대체로 평이한 시조 2작품과 민요 1작품이 출제되었다.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고,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기도 하여 작품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어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쉽게 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출제된 3문항이 모두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로 출제된 것은 조금 이채롭다.

### • 현대 소설

최일남의 〈흐르는 북〉이 출제되었다. EBS 수능특강 수록된 작품이기도 하고, 수능에서 이미 출제된 작품이기도 해서 익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유형도 소설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서술상의 특징 및 내용 파악, 서술상의 특징, 구절 이해 및 어휘의 이해,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등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고전 소설

작자 미상의 <전우치전>이 출제되었다. 이 작품은 EBS 인터넷수능에서 연계 출제되었다. EBS 교재를 공부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제 유형은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미, 인물의 심리,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 현대시

고은의 <성묘>와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가 출제되었다. 고은의 시는 『EBS 인터넷수능』에 수록된 작품이며, 서정주의 시는 기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여 감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출제된 문항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문제 등이다. 시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점검하는 기존의 수능의 출제 방향과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 화곡

EBS 수능특강에 수록되었던 제시문을 중심으로 일부를 추가하여 출제하였다. 익숙한 작품이기도 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 자체는 실험극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작품이다.

### 학습 대책

#### ❖ 화 법

B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연설로 이어지는 담화 유형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각 담화 유형별 특징적인 학습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A형과 공통되는 화법의 기본 성격, 개념, 요소에 대한 이해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제시된 담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더해진다면 대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 작 문

기존의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각 문제마다 접근 방법과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을 고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작문 영역의 문항들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줄이고 정답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기출 문제 분석을 반드시 해 두길 바란다.

#### ❖ 문 법

음운, 어휘, 문장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에 대한 꼼꼼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 영역별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리를 못하면 언제고 문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문법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집중하는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수능을 바라보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개념 정리를 우선으로 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 ❖ 독 서

##### • 인문

‘인문’ 영역은 대체로 주요 사상가의 입장을 소개하는 글을 출제하는 것이 최근 수능의 주된 경향이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그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출제된 기출 지문을 분석 해봄으로써 이해, 정리하는 학습 습관을 기르고, 아울러 EBS 교재에 수록된 사상가의 입장은 따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 사회

사회 현상을 분석한 이론이 나오는 경우는 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제시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이론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각 이론의 관련성이나 각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내용 파악이 그대로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 • 과학

‘과학’ 영역은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소개하는 글이 대부분으로, 특정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인과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어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제시

문에서 언급된 과학적 원리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수준보다는 직접 써서 정리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EBS 교재에 수록된 주요 과학 정보에 대해 원리를 이해한 후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 • 사회

사회 지문의 일반적인 제재였던 경제나 정치 제재가 아닌 법률 제재가 출제되었다. EBS를 비롯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을 수험생 각자의 수준에 맞게 내용, 개념 위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 문학

#### • 고전 시가

EBS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는 학습을 해 두어야 한다.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와 사상의 전개 과정, 주요한 표현상의 특징들은 정리를 해 두도록 하자.

#### • 현대 소설

EBS 출제 작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EBS 수록 작품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제 부분이 겹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지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품의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 방식, 갈등의 핵심, 주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해 두어야 대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설의 기본적인 독해를 훈련하여야 하고, 소설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출 문제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답지들의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고전 소설

보통 고전 소설은 생소한 작품이 출제되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EBS와 연계된 제시문의 경우는 전체 줄거리와 인물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만 되어 있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EBS의 경우는 작품을 주요 사건 단위로 줄거리를 정리해 두고, 인물들의 특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EBS 작품을 독해할 때

기본적인 서사 장르의 독해 요령도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현대시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표현상 특징과 관련한 개념어 또한 평소에 익혀 두어야 한다.

#### • 희곡

EBS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EBS의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사건 단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희곡의 경우에는 희곡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나 용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 [오답 베스트 해설 보기]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의 해설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01~05] (화법)

##### 01 | 발화의 의도 파악

정답: ①

①은 설의법을 활용한 수사 의문문으로 발화자가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근거들을 제시한 후 자신의 주장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그러므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실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근거를 들어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발화도 아니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에 대한 언급도 없다.
- ④ 상대방의 견해가 나오기 전이므로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한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①은 상대방의 답을 요구하는 발화가 아니다.

##### 02 | 발화 내용 추리

정답: ⑤

<보기>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⑤가 적절한 확인 질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앞서 출처가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밝혀져 있다.
- ② <보기>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료의 결과는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높다는 내용임으로 반대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없다.
- ③ 최근에 조사한 자료임이 이미 찬성 1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었다.
- ④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하지 않는 청소년을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 출제 가능 문제

### 03 | 토론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정답 : ④

토론의 논제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다. 그러나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은 청소년 팬덤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찬성 1은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을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적절한 근거이다.
- ②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한다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고, 이는 타당한 근거이다.
- ③ 반대 1은 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이므로 타당한 근거라 할 수 있다.
- ⑤ 찬성 1의 마지막 발화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독이 아니라는 것이죠?’라고 반문하고 있으므로 ‘중독’의 의미를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는 올바른 평가이다.

### 04 |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 ③

㉔은 겸손한 의도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겸양의 격률)이 아니라 상대방을 추어올리는 표현이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에 해당한다. cf. 겸양의 격률 :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함.

#### 오답 피하기

- ①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상대의 생각에 동조하는 발화이다.
- ② ‘고개를 저으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인 행동과 ‘안 될 것 같아’라는 발화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토요일에 연습하지는 상대의 제안에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도와줘’라는 식의 직설적 표현이 아닌 의문문을 활용하여 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⑤ 학생 1이 한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라는 말을 반복하여 재진술하고 있다.

### 05 | 대화 내용과 방식 분석

정답 : ①

[A]는 ‘연습 시간’에 대해, [B]는 ‘연습 장소’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학생 1’과 ‘학생 2’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한 분석 내용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③ [A]는 언제 연습을 할 것인지는 ‘연습 시간’에 대해, [B]는 어디서 연습을 할 것인가하는 ‘연습 장소’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연습 시간의 축소’나 ‘연습 장소의 이동’ 문제가 아니다.
- ④ [A]와 [B] 모두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대화의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 ⑤ [A]에서는 제시된 안을 ‘학생 1’이 종합하고 있으나, [B]에서는 ‘학생 2’의 동의로 대화가 종결되었다.

### [06~10] (작문)

### 06 | 계획에 따른 초고 평가

정답 : ③



학생의 초고에 제시된 해결책은 정부 간의 협상,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다. 이 중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위해 국외 문화재에 대한 이해 자료 및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덕종어보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② 셋째 문단에서 환수가 어려운 이유를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을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섯째 문단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07 |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구체화**

정답 : ⑤

㉠에서 ‘이’가 가리키는 내용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의 수집 자료 중 환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화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환수 현황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파악된 수량에 비해 환수된 수량이 적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국외 문화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은 환수 현황과 관련이 없다.
- ② 정부 주도의 문화재 환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내용은 환수 현황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이 아니다.
- ③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 수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수 현황과 관련이 없다.
- ④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내용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없고 환수 현황과도 관련이 없다.

**08 | 초고의 수정 · 보완 전략**

정답 : ③

〈보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수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환수를 반대하는 이들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고, 이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언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금전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들어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환수 비용 내역을 추가하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다.
- ②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은 환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 ④ 적은 비용으로 환수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일 수 있으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내용은 〈보기〉의 입장에서만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공공 기관에서 환수를 추진할 방안은 〈보기〉입장을 설득하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09 |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 ②

과거 할아버지께서 까치밥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 같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가 친구들과 봉사 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할머니를 만나 봉사활동을 한 후 ㉡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과 ㉡을 연결하여 이 소감문의 주제인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완전한 이해가 체험을 통해 완전한 이해로 되었다고 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시문의 소감문은 문제 제기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인식이나 깨달음에 초점이 있다.
- ④ ㉠과 ㉡ 모두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 ⑤ ㉠에서 ㉡이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에서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감문의 내용상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10 |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③

㉔의 바로 앞 문장에서 내가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㉔에서 '그렇게'라는 지시어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바로 앞 문장과 ㉔의 순서를 바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글의 흐름상 더욱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 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주제만 있어야 한다는 글의 통일성에 비추어 ㉔의 전과 후를 별도의 문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㉔의 전은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와 끼치밥에 얹힌 추억의 내용이고 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최근에 뉴스를 접한 후 친구들과 함께 한 봉사활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㉔ 전후 문장의 흐름에 비추어 '그런데'라는 전환의 접속어보다 '그래서'라는 인과의 접속어가 더 자연스럽다.
- ④ 문맥상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라는 '거부하다'보다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는 ' 사양하다'가 더 적절하다.
- ⑤ ㉔은 부모의 노후에 대한 가족의 의무와 효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글의 중심 내용은 봉사과 나눔에 대한 실천 및 중요성을 다루는 글이므로 통일성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11~16] (문법)

### 11 | 표준 발음법의 이해

정답 : ⑤

'엷지만'은 [언찌만]으로 발음되는데 그 이유는 ㉔에 따라 '엷지만'의 어간 '엷-'의 받침 뒤에 'ㅅ'이 결합하여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또한 '얹을수록'은 [안즐쑤록]으로 발음하며 ㉔에 따라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삼고'는 ㉔에 따른 것이나 '품을 적에'는 ㉔과 관련이 없다.
- ② '늘거든'은 ㉔의 규정에 부합하나 '얹을지라도'는 ㉔이 아니라 ㉔과 관련이 있다.
- ③ '신겅네요'는 ㉔, '뵈지도'는 ㉔에 해당하며 모두

㉔과는 상관없다.

- ④ '비웃을지언정'은 ㉔에, '훑던'은 ㉔에 각각 해당한다.

### 12 | 음운의 축약

정답 : ①

〈보기〉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어간 모음 'ㅁ'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드는 것은 '내'로 적기 때문에, '썩어라'는 '썩-'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라면 '썩랴'가 아니라 '썩랴'로 줄어든다.

오답 피하기

- ② '괴-'와 '-느냐'가 결합될 때 '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선생님의 첫 번째 설명대로 '내'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괘느냐'는 틀린 표현이 된다.
- ③ '썰도'는 '썰-'와 '-어도'의 결합으로 줄어든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뻘서' 역시 '뻘-'와 '-어서'의 결합으로 줄어든 말이다.
- ⑤ '쇠다'의 '쇠-'와 '-더라도'가 결합한다면 선생님의 설명인 'ㅁ'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썰더라도'로 적으면 틀리게 된다.

### 13 | 어휘의 의미

정답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대㉔'의 ㉔에 해당하기 보다는 '녹대㉔'의 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 '녹다'는 오로지 동사뿐이므로 타당하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는 '굳다 ㉔'에 ㉔처럼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라는 의미이고, '엷이 녹다'의 '녹다'는 '녹다'의 ㉔에 ㉔처럼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인해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는 의미이므로 '단단하게 되다'와 '물러지게 되다'에 착안한다면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굳다 ㉔'은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의 의미이므로 해당 용례인 '굳은 결심'등으로 미루어보아 '마음을 굳게 단다'라는 용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녹대㉔'의 ㉔은 '어떤 물체나 현상 등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는 의미이므로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는 의미에 착안한다면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용례도 추가할 수 있다.

**14 | 바른 문장 표현의 이해**      **정답 : ④**

우선 <보기 2>에서 ‘수정 전’과 ‘수정 후’의 표현상 차이에 주목한다면 첫 번째 줄에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보아 <보기 1>의 ㉔의 점점 사항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에 ‘지역에’가 ‘지역의’로 표현이 달라진 것을 통해 <보기 1>의 ㉓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두 번째 줄의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가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로 달라진 점을 통해 <보기 1>의 ㉑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㉔의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의 사용 여부는 <보기 2>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용례로는 ‘고목 나무’, ‘동해 바다’ 등이 있다.

**15 | 담화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이해**      **정답 : ②**

㉓의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감탄사’로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나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다. 해당 담화 상황에서는 ‘감탄사’로서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의 의미로 A는 B에게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을 하려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쓴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끊어진 거야’는 ‘끊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파동 표현으로 전화가 끊어진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아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A의 발화처럼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A의 말을 듣고 난 직후에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부정 부사 ‘못’으로 약속을 어긴 일이 동생이 이파서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다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못 갔어.’라는 막연한 B의 대답에 자세히 말해달라는 요청을 의문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 국어사의 이해와 적용**      **정답 : ①**

<보기 1>에서 ‘ㅎ 종성 체언’의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 실현 양상을 제시해 주고 <보기 2>에서 다른 사례에 적용해볼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㉑에서 ‘나라+을’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ㅎ 종성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고 표기는 <보기 1>에서처럼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으면 된다. 그러므로 ‘나라할’이 쓰인다. ㉒에서 ‘깊+’은 <보기 1>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ㅎ 종성 체언’에 관형격 조사 ‘시’가 결합된 경우이며 표기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깊’로 나타낸다. ㉓에서 ‘않+과’는 <보기 1>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ㅎ 종성 체언’ 뒤에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ㅎ’은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낸다는 실현 양상에 의거하여 ‘안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20] (인문)**

**[지문 해설]**

• **해제** :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는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더 있다. 첫째 이야기는 고도의 몰입을 맹목적 욕망으로 보면서, 이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利害)를 기준으로 과장, 왜곡하거나 배격하게 된다고 말한다. 둘째 이야기는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첫째는 ‘참된 자아’를 잊어 괴로움이 증폭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둘째는 ‘편협한 자아’를 잊어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장자는 후자의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며, 이런 수행을 통해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17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②

이 글은 첫째 문단에서 호접몽 이야기가 ‘물아일체’의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한다고 밝힌 뒤, 두 일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자가 말하는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 의하면 ‘고도의 몰입’은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것으로,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소통과 합일’을 이끌어낼 수 없다.

## 18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②

둘째 문단에 의하면, 맹목적 욕망은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자신에게 이로우나를 기준으로 이를 과장, 왜곡하거나 배격하게 만든다고 한다. 넷째 문단에서 이러한 상태를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다.’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③ 둘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 의하면,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고도의 몰입)’은 맹목적 욕망으로 ‘참된 자아를 잊은 상태’이다.

## 19 | 외적 준거에 의한 반응

정답: ③

〈보기〉에서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의 질서와 혼란은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함께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자처럼 자연 세계와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순자의 입장에서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는 내용으로 장자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 ② 자아를 잊고 만물

과 소통하는 것,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장자’의 주장에 대해, ‘순자’는 이들이 인간(현실) 문제를 해결(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우고, 인간 우위의 문명을 건설하며,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 20 | 어휘- 바뀐 쓰기

정답: ④

‘출현(出現)하다’는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이다’의 의미로, ‘드러나다’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장을 보면, ‘자아와 타자는 ~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다.’인데, ‘출현’은 보이지 않던 존재가 나타나서 보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발현(發現: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남)이나 현현(顯現: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미혹(迷惑)되다 :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 정신이 헛갈리어 갈팡질팡 헤매게 되다.’의 의미이다. 제시문의 ‘홀리다’의 문맥적 의미와 일치한다.

## [21~24] (사회)

### [지문 해설]

- **해제** :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화제로 제시하고 개체화 현상의 양상과 가속화 추세를 소개한 다음, 개체화 현상에 대한 올리히 벡의 ‘위험 사회’와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시대’라는 진단을 소개하고 있다. 벡은 과학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험이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인들이 이에 대응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상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우만은 전 지구적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으며,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방어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 **주제** :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진단한 벡의 ‘위험 사회’와 바우만의 ‘액체 시대’

## 21 |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 ③

이 글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화제로 제시하고, 이에 관한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양상과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둘째 문단),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고 함으로써(셋째 문단 첫째 문장)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소개하고 있지만(둘째 문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통념을 비판하고 새롭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라고 언급하였지만(둘째 문단 첫째 문장), 역사적 기원에 대한 가설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⑤ 개체화 현상의 정의는 첫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 22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②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언급한 둘째 문단 셋째 문장에서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력 약화’를 개체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 넷째 문장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를 통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둘째문단 다섯째 문장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 다섯째 문장 “그런데 벡은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⑤ 넷째 문단 다섯째 문장 “그러나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와 그 이하 설명에서 추론할 수 있다.

## 23 | 핵심 개념의 이해와 비교

정답 : ③

- ㉠은 셋째 문단 다섯째 문장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인들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 넷째 문단 다섯째 문장 이하에서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며, 개인들이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방어에 몰두한다고 함으로써 연대의 가능성이나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셋째 문단 셋째, 넷째 문장(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넷째 문단 둘째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④ ㉠은 셋째 문단 셋째 문장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개념이고, ㉠도 넷째 문단 셋째 문장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셋째 문단 다섯째 문장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와 넷째 문단 셋째 문장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에서 ㉠, ㉠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 어휘의 사전적 의미

정답 : ①

‘방치(放置)’의 사전적 의미는 ‘내버려 둠’이다.

‘쫓아내거나 몰아냄’은 ‘축출(逐出)’의 사전적 의미이다



[25~26] (과학)

[지문 해설]

- **해제** : 우주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은하들의 중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1970년대에 루빈은 나선 은하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이론상으로 은하의 중심부 밖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의 공전 속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별의 공전 속력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했다. 이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이후 2006년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 등의 보통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성질이 밝혀졌다.
- **주제** : 암흑 물질의 존재 및 특성 규명 과정

25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하게 된 것은 ‘은하들의 중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④

곡선 A는 중력 법칙을 써서 계산한 ‘예측값’이고, 곡선 B는 나선 은하를 실제 관찰하여 얻은 ‘측정값’이다. 중심부 밖에서 곡선 A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별의 공전 속도가 감소하는데 반해, 곡선 B는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로부터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줄 물질(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는 ④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이론상 은하의 중심에서 별이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든다. 하지만 관측 결과(일정한 공전 속력)로부터 중력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7~30] (사회)

[지문 해설]

- **해제** :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을 설명하고 있다. 손해 배상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적 수단인데 반해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각각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 수단,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수단이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다. 그러나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주제** :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

27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윗글은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둘째 문단)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다.(셋째 문단) 그러나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넷째 문단) 특히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



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수단인 배상금이 형사적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제재가 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다섯째 문단)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넷째 문단에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 ② 넷째 문단에 “... 중복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해설자 추가)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다섯째 문단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셋째 문단에 “...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28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셋째 문단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신유형 문제

## 29 | 구절 이해

정답 : ④

둘째 문단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㉔벌금과 비슷한 성격’은 ‘형사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바르다. 행정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과징금’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㉑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기존 제도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㉑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고 서술되어 있음으로 ‘직접적인 도움은 손해 배상, 즉 금전적 구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㉒의 ‘그것’은 앞 구절을 받는 지시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상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③ ㉓의 ‘이’는 앞 구절을 받는 지시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상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횡재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횡재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초과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0 | 사례 적용 및 해석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넷째 문단)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② 첫째 문단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 억제하는 데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 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시행으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넷째 문단에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3배의 배상금에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와 달리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넷째 문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기>에서는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⑤ 셋째 문단에 “...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보기>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고 했으므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

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이기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31~33] (고전시가)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턴다~’

#####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다) 정성 아리랑

#### 【지문 해설】

#####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턴다’

- **해제** : 이 작품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조이다. 초장에서 시적 화자는 ‘못 오턴다’를 반복하면서 임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 다음 중장에서 임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가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생’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자물쇠’까지 열거하면서 임이 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여기에 열거된 시어들은 서민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로,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한 달이 30일 인데 그중에서 하루도 자신을 보러 올 수 없느냐며 임에 대한 원망과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 **주제** :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 **해제** : 의인화된 기러기를 대상으로 대화체를 구사하여 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장에서 시적 화자는 저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한양성 누각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중장에서 자신의 소식을 임에게 전하고, 임의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종장에서 기러기는 자신들도 임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 소식을 전해 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와 기러기는 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다) 정성 아리랑

- **해제** :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는 ‘정선아리랑’은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과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 민요이다. 1,200수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전해지는데, 주된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과 세태의 풍자 등이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특히 시집 못 간 처녀의 시름과 한탄이 담긴 목소리로 삶의 고단함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신의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

### 31 |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 ③

(나)에서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하는 외로운 처지를 의인화한 ‘외기러기’를 통해 하소연하고 있다.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종장의 ‘호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라는 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선지이다. 이 구절은 자신과 떨어져 있는 임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을 드러낸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가)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따라서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나)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에게 전해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가), (나) 모두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가)작품을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성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공간 묘사는 임이 화자 자신에게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 위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는 볼 수 없다.

### 32 |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 ④

[D]는 ‘오늘 갔다 내일 오는 달’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 가신 임은 그 언제 오나’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질서와 달리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늙어가는 고사리와 정든 임을 대조하여 임이 늙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닌 것 처럼 ‘가시는 임’도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시집살이가 어떻던가’라는 질문에 ‘삼단 같은 고운 머리가 비사리춤 같은 거친 머리가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즉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⑤ 화자 자신이 임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 33 |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 ②

‘적막 공구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있는 현재의 화자 자신의 모습을 ‘외기러기가 한양에 들러’ 임에게 전해달라고 했으므로, 앞 서 있는 시간은 ‘홀로 안져’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연쇄법이란 앞 구절의 말을 뒤 구절에 연결하여 이어가는 표현법이다. (가)에서는 ‘무쇠 - 성 - 담’이 연쇄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③ ‘집’, ‘뒤주’, ‘궤’ 등과 ‘고비’, ‘고사리’는 일상 생활에 밀접한 사물들이다. 감상자(수험생)의 현재적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시가 쓰여졌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뒤주’, ‘궤’ 등도 생활에 밀접한 사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가), (나)에서 각각 ‘못 오던가’, ‘성님’이라는 단어와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단어, 구절의 반복은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⑤ (나)의 ‘전혀여 주렴’은 ‘외기러기’를 청자로 하고 있으며, ‘건너 주게’는 ‘뱃사공’을 청자로 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34~36] (현대 소설) 최일남, 흐르는 북

#### [작품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1980년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주고 있다. 민 노인은 젊은 시절 자유롭게 예술 정신을 추구한 인물로, 민 노인의 예술을 드러내는 복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리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 그리고 아들 성규에게도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성규의 태도는 전통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이상, 안정과 변혁에서 오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세대 간 갈등 과정과 화해 모색 과정을 통해 그리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의 추구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그 극복

### 34 | 서술상의 특징 및 내용 파악

정답 : ⑤

㉔은 아버지와 성규의 대화에 어머니의 발화가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성규가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이다. 즉 아버지 세대와 성규 세대의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민 노인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② 민 노인(민익태)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복에 빠져 있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민 노인에 대한 아들(성규의 아버지)의 증오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민 노인 삶이 할망구(민 노인의 부인)가 살아 있던 시절과 없는 현재의 삶이 대비되어 있다.
  - ④ 아버지와 성규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반어(反語)’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 35 | 구절 이해

정답 : ④

이 구절은 성규가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성규의 판단에 따르면,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한편에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는 것은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 현실을 살아가려는 생활인의 감각이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방황하는 삶은 아버지가 아니라 민 노인에 해당하는 말이다. 오히려 아버지는 생활인으로서 현실에 집착할 만큼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세련된 입신’은 아버지의 현실에 충실한 삶을 의미한다.
- ② ‘날선한 생활’은 민 노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세월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현재의 삶을 표현한 말이다.
- ③ ‘역사의 의미’라는 구절은 성규의 대화에 나온 말로, 할아버지인 민 노인의 세대와 아버지 세대간의 갈등이 성규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에서 화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성규가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비극적 차원’은 ‘아버지’와 ‘성규’의 갈등에 대한 성규의 언급이다.

### 36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④

〈학습 활동 과제〉는 이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습 활동 과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 활동 과제〉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민 노인이라는 예술가의 삶을 둘러싼 세대간의 ‘소통’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 노인과 아버지의 갈등, 아버지와 성규의 갈등을 예술 혹은 예술가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④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으나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



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문제가 ‘민 노인이라는 예술가의 삶을 둘러싼 세대간의 ‘소통’을 묻는 문제’다. 따라서 민 노인과 아버지의 갈등은 예술에 대한 아버지와 민 노인의 소통단절이 두 사람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② 문제가 ‘민 노인이라는 예술가의 삶을 둘러싼 세대간의 ‘소통’을 묻는 문제’다. 따라서 성규와 아버지의 소통 단절은 예술가, 민 노인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민 노인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북에 빠져 살았음’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민 노인의 예술을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 ⑤ 둘째 문단에서 ‘아버지(민 노인)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 평생이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성규 아버지)의 내력에 중요한 함으로 작용한다.’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성규 아버지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방해가 된다고 ‘성규아버지가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은 타당한 분석이다.

**[37~4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전우치전**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홍길동전>과 유사한 영웅 소설로서 전우치라는 주인공의 행적이 여러 개의 독립된 삽화로 엮여 있다. 전우치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다. 전우치는 조선 시대 실재했던 인물로서 전라도 담양 사람이었다고 한다. 지방에서 선비로 행세하다가 나중에 고려의 도읍지인 송도에 가서 숨어 버렸다는 설이 있다.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소설이긴 하나 그의 도술 행각을 그린 내용은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내용이 <홍길동전>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데가 있어 그 아류로 보기도 한다.
- **주제** : 빈민 구제와 당시 정치 비판과 전우치의 의로운 행동

**37 | 사건의 흐름 파악**

**정답 : ②**

상(임금)이 도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전우치가 자신이 나아가 홀로 적세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내겠다고 하니 상이 기뻐하여 어주와 인검을 주었다. 따라서 상이 전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린 것은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우치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소를 올린 뒤 전우치가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③ 으뜸 도적(엄준)이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잔치를 하며, 그 뒤 대청에는 미녀 수백 인이 상을 받고 있다.
- ④ 집장과 나졸이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서 치지 못하는 사이에 전우치는 이번 일이 애매하니 용서해 달라 말하고 있다.
- ⑤ 상이 전우치의 죄를 추궁하며 역모의 죄와 함께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고 있다. 때문에 전우치는 이번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술을 부려 도망하고 있다.

**출제 가능 문제**

**38 |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 ⑤**

㉠과 ㉡은 전우치가 도망갈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에 상이 말려들어, 전우치에게 지필을 내려 그림을 그리게 하는 상의 심리가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도적 엄준의 노략질이다. 엄준의 노략질은 전우치가 유발한 사건이 아니다.
- ② ㉡에 나타난 상의 반응은 역모라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 ③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은 우치의 과거 행위와 역모에 대한 혐의이다. 이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④**

<보기>에 따르면, 제시문은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제시문에 있는

두 삽화 모두 초월적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엄준 토벌에 우치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역모 누명으로 처벌 위기에서 도술을 통해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 ㉠과 ㉡ 모두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하고 있다.
- ② ㉠과 ㉡에서 다른 도술이 사용되고 있다. 〈보기〉에서 다양한 도술 사용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 ③ ㉠과 ㉡ 모두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주인공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40 | 사자성어의 상황 적용**

정답 : ⑤

갑작스런 상황에 엄준과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다. ‘매우 놀라거나 혼이 나서 넋을 잃다.’는 의미의 혼비백산(魂飛魄散)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돌아나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

**[41~43] (현대시) ㉠ 고은, ‘성묘’,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뒀안 뿔마루’**

**[지문 해설]**

**㉠ 고은, ‘성묘’**

- 해제 : 지은이의 시작 경향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초기의 허무적 경향에서 벗어나 역사 의식의 단초(端初)를 보이는 시기에 쓰인 시이다. 지은이는 소금 장수인 ‘아

버지’를 통해 민중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두만강에서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보행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방랑의 길에 올랐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 : 망국의 분단의 현실에 대한 한 /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염원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뒀안 뿔마루’**

- 해제 : 외할머니의 댁 뿔마루에 얹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시로 외할머니 댁에 있던 뒀안에 있는 ‘뿔마루’라는 소재를 통하여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추억의 장소이자, 우리네 교육이 이어지는 정감의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꾸밈음보다는 사랑을 통한 정미의 문화가 담겨 있는 교육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여기서 뿔마루는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추억의 장소이자, 우리네 교육이 이어지는 정감의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꾸밈음보다는 사랑을 통한 정미의 문화가 담겨 있는 교육을 엿 볼 수 있는 시이다.
- 주제 : 어린 날의 추억과 그리움

**41 |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 ④

㉠은 ‘붉은 물빛’, ‘하얀 소금’에서, ㉡은 ‘먹오디뿔’에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과 ㉡ 모두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부분이 없다.
- ② ㉡에는 부정적 현실을 관조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의 화자는 어린아이로 볼 수 없다.
- ⑤ ㉠과 ㉡ 모두 역설적 표현이 없으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 자세도 확인할 수 없다.

**42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⑤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라는 표현을 통해 통일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과거의 공간으로, 화자는 과거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은 과거 우리 민족의 수난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를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현재의 공간으로,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세대교체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곳이다.
- ④ ㉡은 미래의 공간으로,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곳이다. 이는 남북이 통일된 모습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것이다.

#### 43 |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 ①

이 시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집 뒤편’은 화자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역시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집 뒤편’이 화자가 텃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텃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 그리고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다. 나이가 너무 많이 묻힐러서 ‘거울’로 닦여져 있다. 이를 통해 ‘거울’은 손때가 텃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화자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은 뒤 텃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주신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으며 숨을 바로 한다고 했다.
- ④ ‘오디 열매’는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
- ⑤ 텃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외할머니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44~45] (희곡) 이강백, ‘결혼’

#####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이강백의 단막극으로, 실험성이 돋보이는 희곡이다. 무대 장치는 물론이고 무대와 관객들 사이의 공간의 구별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작

품의 극적 전략은 연극 공연에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극 속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본래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무절제한 소유적 욕망을 풍자적 상황 설정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관객들 역시 자신의 소유물이 뜻하지 않게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소유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한 남자는 단 한 시간 만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이는 어쩌보면 현대인의 진지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은 한 남자가 중국에 주장하는 것, 곧 소유하는 사람보다는 헌신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극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주제 :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

#### 44 |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 : ③

㉠은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실망하여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 하인이 아무 말 없이 빼앗아 가는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② ㉡ 하인이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이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④ ㉢ 관객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통해 관객을 극 중에 끌어들여 자신의 말을 입증할 증인으로 삼고 있다.
- ⑤ ㉣ 여자가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부축해 일으켜 포옹하는 것은 빈털터리 남자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 45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인은 마지막에 구둣발로 남자를 걷어찬다.

오답 피하기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무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다.
- ② 하인은 등퇴장을 통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하나 둘씩 회수해 간다. 이를 통해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것이다. 남자는 첫 대사에서 제한된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인이 무대로 되돌아오기 전에 머무는 공간은 무대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무대 밖 공간이다.

④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을 통해 관객을 극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을 극중 사건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찰대&사관학교 1차 시험 대비 적중 모의고사

- 합격을 위한 최종 실전 모의고사(6/20 시행) -

모의고사 시험지



해설지



해설강의

☒ 실전과 동일한 문제 유형

☒ 최신 경향에 따른 적중도 높은 문제

문의  
02 2631 0126

인터넷 접수

종로학원

검색

www.jongro.co.kr

종로학원·종로학평

